



# “노출 이미지 부담없어요”

## 최근 종영 ‘완벽한 아내’서 사이코패스 은희 역 조여정 “첫 악역 잘 소화해내서 만족...그저 열심히 할 뿐이죠”

최근 종영한 KBS 2TV 월화극 ‘완벽한 아내’에서 맡은 사이코패스 은희 역할도 강렬했던 탓에 주위에 이미지 고착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지만 그는 첫 악역을 잘 소화해내 데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의 작품에서 참고한 모델도 없이 은희 캐릭터에 대해 혼자 상상하고 분석해 연기했는데 호평이 많아 요즘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1997년 잡지 ‘세씨’ 모델로 데뷔해 tvN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2011), SBS TV 드라마 ‘이혼변호사는 연애중’(2015), KBS 2TV 4부작 ‘베이비시터’(2016)와 영화 ‘방자전’(2010), ‘인간중독’(2014)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지만, 악역 도전은 ‘완벽한 아내’가 처음이었다. 심지어 개연성도 없이 단단히 미친 여자다.

조여정은 “내가 공감을 못 하면 보는 사람들이 못 믿는다고 생각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하자고 생각했다”며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만난 나쁜 사람들을 다 떠올려봤는데 진정한 악인은 자기가 바르다고 완벽하게 믿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조여정은 이번엔 ‘액션’도 꽤 소화했다. 연적 정나미(임세미)를 무참하게 때려죽이고, 사랑하는 구정희(윤상현)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뒤통수를 가져 없이 가졌다.

“제 키가 작는데 큰 사람들을 때리면 웃겨 보일 수 있다는 걱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무표정을 유지하고

마치 눈 앞의 걸리자거리리는 나뭇잎을 지워버린다는 생각으로 때렸어요. 상헌 오빠는 ‘제구 작은 여정이 가 때려뺏기지’ 하다가 세계 맞고 휘청했죠. 마지막까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소영과의 남다른 친분도 자랑했다. 조여정은 “언니는 기억 못 하는데 첫 만남은 제가 고등학생 때 방송국에서였어요. 언니가 멀리서 걸어와서 교복 입은 저를 보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 참 예쁜 애구나’ 했었죠. 저는 ‘고소영’이란 존재감에 완전히 열어버렸고요. 어릴 적 우상이었는데 작품을 같이 하면서 친해져서 좋아요.”

조여정은 사실 그동안 몸매 등 외형적인 부분이 부각되면서 연기력이 묻힌 측면이 없지 않다. 이번 작품에서는 온전히 연기로 평가받았지만, 역시 조금 복잡한 장이나 화려한 드레스 등을 쓴은 자세로 완벽하게 소화한 모습은 화제가 됐다. 평소 관리 비법을 알려고 그는 소개했다.

그는 “현대비용을 배운 지 2년 됐다”며 “무용 공연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무용수의 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작품을 보면 ‘저렇게밖에 못했나’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그대로 인정해버려요. 은희 역할도 과거의 제가 했다면 이만큼 못했을 거예요. 칭찬만 듣는 요새 기분 같아선 다시 태어나도 배우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 사이 ‘YG 패밀리’ 손잡고 돌아온다

### 지드래곤·태양 등 피쳐링, 뮤직비디오는 이병헌

가수 사이(본명 박재상·40)의 정규 8집 ‘4X2=8’에 ‘YG 패밀리’가 피쳐링 가수로 총출동했다.

7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8집의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박재상의 지드래곤과 태양, 에픽하이의 타블로, 아이콘의 비아이와 바비, 배우 이성경 등 YG 소속 스타들이 피쳐링을 채웠다.

2015년 발표한 7집에는 자이언티, 시아준수, 전인관, 다이나믹 듀오, 블랙아이드 피스의 윌아임 등 외부 피쳐링이 대다수였지만 이번에는 작정하고 ‘YG 패밀리’만 참여시켰다는 게 YG의 설명이다.

타이틀곡은 배우 이병헌이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아이 러브 잇’(I LUV IT)과 에이핑크의 손나은이 등장하는 ‘뉴 페이스’ 등 두 곡이다. 작사·작곡에는 박진영, 지코, 바비, 비아이, 타블로를 비롯해 프로듀서 유건형과 쿠시 등이 참여했다.

사이는 그간 ‘강남스타일’과 ‘젬블맨’ 등 다수의 히트곡을 유건형과 함께 탄생시켰고 작사를 주도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여러 뮤지션과 작사·작곡을 협업해 눈길을 끈다.

사이의 8집은 10일 오후 6시 공개된다. /연합뉴스

## 조인성 차기작 영화 ‘안시성’ 확정

### 현명한 리더 양만춘 장군 역

조인성이 영화 ‘안시성’의 주인공인 양만춘 장군 역에 캐스팅됐다고 제작사 스튜디오앤뉴가 밝혔다.

영화 ‘안시성’은 안시성을 함락시키려는 당나라 50만 대군의 침략에 맞서 싸운 성주 양만춘과 고구려군의 88일간 치열했던 전투를 담아낸 사극이다.

조인성은 “영화 ‘안시성’에서 보여주는 뜨거운 메시지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강인하고 현명한 리더로서의 모습 등이 시나리오에 완벽하게 녹아 들어있어 쾌쾌히 작품을 하게 되었다”며 “특히 스크린으로 구현될 대 전투극은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됐다”고 밝혔다.

‘안시성’은 순제작비만 약 15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내 갱패 같은 애인’의 김광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 ‘안시성’은 주요 캐스팅을 마무리한 뒤 오는 8월 크랭크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개봉 예정이다. /연합뉴스



영화 ‘방자전’(2010), ‘후궁:제왕의 첩’(2012), 그리고 ‘인간중독’(2014)까지 배우 조여정(36)은 곧잘 노출 연기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정작 본인은 특정 작품으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데 대한 부담은 전혀 없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다.

“노출 이미지가 자꾸 쌓이면 차기작에 부담되지 않느냐고 많이들 걱정하지만 저는 부담 없어요. 그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연기할 때 다른 생각들이 섞이면 안 되니까요. 다른 남자 선배들을 봐도 형사 등 비슷한 역할만 하는 분도 많지만 작품마다 다른 모습이어야요.”



왼쪽부터 ‘방자전’ ‘인간중독’ ‘후궁:제왕의 첩’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가정의달 특선 인간극장 스페셜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홍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감성툰 고맙습니다 스페셜	00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KBC 특집토론 2017 대선 D-2 호남의 선택은?
12	00 KBS 뉴스 12		00 MBC 청요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KBC 특집토론 2017 대선 D-2 호남의 선택은?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5 명인 (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10 키즈 사이언스6 (재) 55 파워배틀 와치카	55 닥터 365
2	45 콘서트 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00 뉴스브리핑
3	35 공감다큐, 사람 45 이옥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재) 55 슬터(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건물복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쇼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문재인 후보) 25 빛나라 온수	30 글로벌 24 55 제보자들	55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국민의당)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국민이당 안철수후보
9	00 KBS 뉴스 9		15 리얼스토리 논 40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더불어민주당)	15 생활의 달인
10	00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홍준표 후보) 2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개인주의자 지영씨)	00 월화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것속말)
11	20 KBS 뉴스라인 40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안철수 후보)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2017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나의 이름은 신성혁)	10 초인가족 2017
12	00 해외걸작드라마 리얼 웨폰 50 101세의 프로젝트 (재)	35 비바 K리그	20 MBC 뉴스 24 4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5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동시베리아의 젓줄 레나강 철마의 여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6:00 한국기행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06:20 세계태마기행 (마파두부밥과 달걀국)	10:30 한국기행(재)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마파두부밥과 달걀국)
07:30 로보카 폴리	11:20 세계태마기행(재)
07:45 출동! 슈퍼핑크	12:00 EBS 정오 뉴스
08:00 덩동명 유치원 1~2	12:10 글로벌 가족특집기 -한국에 산다
08:30 꼬마버스 타요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2:45 EBS 다큐프라임(재)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얼마를 찾지마
	14:30 정글에서 살아남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기 썬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콩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쿵(재)
	16:45 덩동명 유치원 1~2(재)
	17:15 얼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토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태마기행 <문명의 고지름 피키스탄 1부 무굴 제국의 심장 라호르>
	21:30 한국기행 <전설의 한 끼 1부 장수왕, 영조 밥상의 비밀>
	21:50 EBS 다큐 프라임 <강대국의 비밀>
	22:45 얼마를 찾지마
	23:35 가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초콜릿의 두 얼굴>
	24:30 세계의 드라마 (에이 워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8일(음 4월 13일 乙未)
子	48년생 새로운 틀이 짜여 지고 관계가 형성되리라. 60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72년생 다 함께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84년생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44, 95	42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써 때라. 54년생 포용력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66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78년생 상태를 존중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 90년생 때가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8, 52
丑	49년생 세상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는 적이다. 61년생 마음만 앓을 실행하기 힘든 판세이니 점으로 예측하기 고르지 않았다. 73년생 꼭 만나야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니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보라. 85년생 변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7, 76	43년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장이 많을 수도 있다. 55년생 이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67년생 듣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79년생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91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37, 33
寅	50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나아가자. 62년생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74년생 축한의 추위에 떨어보았던 이만이 태양 별의 진정한 온기를 만끽할 수 있으니라. 86년생 뒷감당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행하라. 행운의 숫자 : 80, 54	44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방심한다면 그 순간에 놓칠 수도 있다. 56년생 미리 준비 해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68년생 기다리 잡히는 사슴이다. 80년생 자유로운 상태로 놔두는 것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31, 40
卯	51년생 복잡다단한 것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잘하여 단순화시켜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63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길사에 이른다. 75년생 계획대로라면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87년생 생 지각 변동을 재촉하리라. 행운의 숫자 : 35, 77	45년생 시기상조이니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57년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용이하다. 69년생 세밀하게 조절해야 할 일장이니라. 81년생 모여서 논해 봐야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29
辰	52년생 광선하고 있다는 영검결에 더불어서 억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64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76년생 실행의 주기가 규칙적이려면 상대에게 신뢰감을 준다. 88년생 고르지 않는 성국이다. 행운의 숫자 : 03, 59	46년생 예전과는 달리 흐름이 심상치 않다. 58년생 소신과 주관 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70년생 마무리까지 잘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82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있다. 행운의 숫자 : 21, 56
巳	53년생 소강상태 하에 놓여있는 기존의 국면을 타개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65년생 디딤돌이 될 것이다. 77년생 잘 살펴보라. 89년생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영동한 것만 눈에 띈다. 행운의 숫자 : 85, 35	47년생 길사로 인해서 탄력이 부족하다. 59년생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다. 71년생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83년생 비슷한 사례를 참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49, 72